

ETRI, 유전자정보 서비스 제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부가가치 유전자 정보 제공이 가능한 바이오인포매틱스(컴퓨터로 각종 생명 정보 처리) 핵심기반 S/W를 개발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기술 이전한다고 12월25일 발표했다.

KBSI는 바이오 연구와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결과를 학계 및 산업계에 제공하며, 정부출연연 가운데 처음으로 IT-BT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이오인포매틱스 핵심기반 S/W 기술은 30억쌍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유전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색인, 검색, 분석, 시각화해 바이오 데이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나 단백질 등을 선정하거나 판별, 암 등 난치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개인별 맞춤의학 등 전반적인 바이오산업에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유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술 이전하는 바이오인포매틱스 핵심기반 S/W는 <ProteinVista> 등 4건으로, 단백질 기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유전자와 단백질의 상호작용 및 조절 기작을 예측해 가시화할 수 있는 첨단기능이 탑재돼 있다.

ETRI 관계자는 “전 세계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7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KBSI와 함께 바이오 연구관련 심층정보를 학계와 산업계에 지원하게 됐다”며 “2007년 상반기에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6>